

## ■ 기고

## 남극 해양생태계 보전 시급하다

오늘 (2일)부터 호주 호바트에서 제28차 남극해양자원보존협약(이하 카밀라협약) 연례 총회가 열린다. 카밀라협약은 한국처럼 남극 바다에서 조업하는 국가와 남극 대륙에 과학기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남극의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만든 환경보호협약이다.

평소 볼 기회가 많지 않은 세계지도나 지구본에서도 남극은 밑바닥에 위치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 지리적으로 우리의 일상적 관심 범위에서 한참 벗어난 곳인 남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육상의 얼음이 자라 바다 위로 뿔어나간 얼음대륙인 빙봉이 붕괴되고 빙하가 줄어든다는 뉴스는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가 남극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여기에 극지방 바닷물의 산성화 문제가 가져올 생태적 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도 우려를 더한다.

영국 남극조사단 거버트 타빙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남극 먹이사슬의 핵심종인 남극 크릴 수 조마리가 때로 뭉치는 '초대형 군집(super swarms)' 현상이 목격되고 있

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군집 현상으로 인해 향후 크릴 생태계가 인간에 의한 남획에 훨씬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과학자들에 의한 의미있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남빙양 해양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방 조치를 최대한 추구하는 것이 지구촌 생태계의 보고인 남극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다.

이 중 각종 조업과 자원탐사 활동 등을 제한하는 해양보호구역 설정을 지정하는 일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들로부터 남극생태계를 지켜내고 회복시켜낼 가장 좋은 방법이다. 최근 카밀라협약은 남빙양의 11개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아직 분명한 목표와 시기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이 11곳의 남극해양보호구역이 생태적으로 충분한 크기로 확보돼 2012년까지 지정이 완료돼야 필요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한다.

11개 후보지역 중 하나가 서남극의 아래쪽에 위치한 로스해(the Ross Sea)다. 이

곳은 세계에서 환경오염 영향을 가장 덜 받은 곳으로 조사된 지역이다. 로스해는 야생동물의 집결지로 갈라과고소성에 비할 정도의 굉장한 생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로스해는 과학자들이 인간 조업의 영향을 배제한 채 순수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연구할 수 있는 곳이다. 세계의 다른 곳은 대형 포식자의 90%가 사라져 먹이사슬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지만 남극의 로스해에는 상위 포식자들이 아직 풍부히 남아 있다.

카밀라협약은 남극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 온 국제기구이다. 이제 카밀라는 2012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본래의 목적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는 남극조약이 맺어진 지 5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한국은 세계 선두권의 원양산업국가다. 남빙양에서도 크릴과 메로 등을 가장 많이 잡는 나라에 속한다. 그동안 어획량을 늘리는 일에만 몰두해 국제적으로 남획국가라는 오명도 받아왔다. 해양자원이 점차 고갈돼 거의 모든 어획종을 둘러싸고 규제가 강

화되는 이때 조업국가로서 더 이상 각종 해양자원 보호 문제를 피해가기는 힘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줄타기가 통하지 않게 되면서 정부가 이른바 '탄소 외교'를 시작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원양산업 선두국가이자 2012년 여수 해양엑스포를 개최할 나라로서, 지구촌 해양자원 보호라는 대의명제를 외면하지 않을 때 해양활동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갖게 된다. 또한 자원보호 조치를 앞장서 지키는 일은 해외 수산시장을 확보하는 일이기도 하다. 호주에서 열리는 카밀라 총회에서 한국대표단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최 에 응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위원